

地圖를 통해 본  
前近代 中國과 이슬  
람 世界의 交流

Hyunhee Park, Mapping the Chinese and Islamic Worlds: cross-cultural exchange in pre-modern As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尹 載 云  
(大邱大)

- I. 머리말
- II. 전근대 중국-이슬람 교류의  
확기와 내용
- III. 본서의 시각과 연구쟁점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서는 전근대 중국과 이슬람 사  
이의 교류를 다룬 것이다. 저자인  
박현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대학교  
Hebrew University에서 석사를, 예  
일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현  
재는 뉴욕시립대학교(CUNY) 사학과  
교수로 있으며 학술저널인  
“Crossroads: Studies on the  
History of Exchange Relations in  
the East Asian World”의 편집위원  
이기도 하다. 본서는 저자의 2008년  
도 예일 대학 박사학위논문<sup>1)</sup>의 내  
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수 세기동안 지  
속된 아시아의 교류를 담당했던 두  
세력, 중국과 이슬람 세계간의 지리  
지식의 범위를 살펴보았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세계사에 만연하는  
유럽 중심주의에 대한 재검토<sup>2)</sup>를

1) The Delineation of a Coastline: The Growth of Mutual Geographic Knowledge in China and the Islamic World from 750 to 1500.

2) 유럽중심사관에 대한 반론은 국내학계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한국서양사학회,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서울: 푸른역사, 2009). 이 책의 주요 목차와 필자는 다음과 같다.

제1부 유럽중심주의 역사학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에서 서양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강철구),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히스토리(김원수)

제2부 다시 돌아본 유럽중심주의 세계사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본서의 주요내용과 그 의의를 관련 연구 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전근대 중국-이슬람 교류의 획기와 내용

본서의 시간적인 범위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사이의 교류가 시작된 750년부터 유럽인들의 등장에 의해 경제·정치 교류가 달라진 1500년까지이다. 이 책은 800년의 시간을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시기는 각기 중국과 이슬람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1시기는 몽골 이전시기인 750-1260년이고, 2시기

는 1260-1368년까지로 몽골시기를 다루고, 3시기는 포스트 몽골시기로 1368-1500년 까지이다. 본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

1. 제국의 만남에서 해상무역으로- 중국의 이슬람 세계 이해 (750-1260)
2. 중국과 세계에 대한 묘사-이슬람의 중국에 대한 지식(750-1260)
3. 몽골세계에 대한 해석-중국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이해 (1260-1368)
4. 마르코 폴로를 넘어- 중국에 대한 이슬람의 지식(1260-1368)
5. 1492년 이전 반대편 세계의 유산-중국의 이슬람 세계 이해와 이슬람의 중국에 대한 지식 (1368-1500)

맺음말

먼저 1장 ‘제국의 만남에서 해상 무역으로-중국의 이슬람 세계 이해 (750-1260)’에서는 중국-이슬람 교류의 시작을 다루었다. 8세기 중반은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융성한 접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시기이다. 중국과 이슬람 자료들이 증명하는 이벤트인 751년 중앙아시아 탈라스에서의 아바스와 당 사이의 첫 번째 군사 충돌은 중국과 이슬람 사회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관련된 복잡한 정치 역학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긴장된 정치 관계는 길게 지속되지 않았

---

고대 그리스 문명은 ‘유럽적인’ 문명인가(김봉철), 비잔티움 세계와 서유럽: 시각의 차이(김차규), 중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은 원정인가 침략인가(송경근)

제3부 다시 돌아본 유럽중심주의 세계사: 자본주의에서 제국주의까지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유럽(강성호), 유럽중심주의와 자본주의(유재건), 제국주의, 역사주의, ‘차이의 역사(학)’(김택현)

제4부 유럽중심주의를 보는 시선: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유럽 인식과 자기정체성 탐색(박구병), 탈냉전과 대서양 공동체의 분열(김봉중)

다. 왜냐하면 안록산의 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를 대신한 유목국가들이 실크로드의 무역로를 막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진적인 육상무역의 쇠퇴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안으로서 해로의 흥기를 자극하였다. 두 사회간의 관계는 인도양으로 이동하여 수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나라들에 대한 趙汝适의 서술은, 1000년 이후 발생한 중국측 지식의 증가를 증명한다. 8세기 당에서의 大食이란 애매한 이미지는 400년 뒤에는 20개 국가 이상의 다양한 지역이 되었다. 중국인들은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어떤 곳이 중요하고 왜 그런지를, 무슬림 상인들이 무역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중국인들이 원하는 특별한 상품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아랍과 페르시아 무슬림 상인들은 전체 인도양 무역을 제어하였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간의 해상 무역의 증가하는 양과 중요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항해와 시장 모두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모으도록 하였다. 그것은 여행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슬람 세계에서 각국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하였다. 많은 문헌기록과 고고학 유적은 중국의 배들이 이 시기에 매우 자주 해외 항해를 수행하기 위

해 해안선을 따라 얼마나 멀리 갔음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음을 증명한다. 이 시기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중국의 지식 증가와 오랫동안 변함 없는 연락과 교류에 관계된 사람들 사이의 정보 순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한다.

2장 '중국과 세계에 대한 묘사-이슬람의 중국에 대한 지식 (750-1260)'에서는 두 세력의 활발한 교류 활성화의 토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아바스왕조 통치 기간 동안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상업적 팽창은 종래의 그리스, 이란, 그리고 인도 전통을 넘어서는 지리분야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초기의 세계 지리 지식 이론에 근거하여 아바스의 지리학자들은 알려진 세계의 중심에 이슬람 세계를 위치시켰다. 이를 위해 그들에게 알려진 세계의 동쪽 끝머리에 중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에 의해, 그들은 이전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넣었다. 9-10세기에 인도양을 항해해서 중국으로 자주 갔던 상인과 선원들은 그들이 방문했고 종종 오랜 기간 동안 정착했던 사회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값비싼 물품을 가지고 서아시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동아시아 사회의 이국적인 물품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논픽션 도서일 뿐 아니라 중국에

서 일어났던 신밧드 Sindbad의 千一夜話 같은 환상적인 우화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이 아라비아와 중국의 항구 도시사이를 직접 항해한 다우dhow를 통한 중국과의 활발한 접촉으로 인해, 알려진 세계에 대한 이슬람의 지리 지식은 중국을 ‘미지의 나라’에서 ‘알려진 나라’로 바꾸었다.

9세기와 10세기의 전환기에 무슬림 들은 점차적으로 남부와 동남아시아에 정착해서 영구적인 디아스포라를 세우기 시작했다. 몇몇 예외 외에는 무슬림 들은 더 이상 페르시아 만에서 중국의 항구까지 항해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남·동남아시아와 중국·인도양 사이를 항해한 중개 상인을 통하여 중국과 무역을 하였다. 이러한 교통 구조의 이동은 이슬람 세계가 바다 관계를 통한 국가에 대한 얻는 정보의 양을 감소시켰다. 10세기 이후로는 사실상 인도양 지역에 대한 중동의 지식은 대체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육상교통로를 통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즐겼던 몇몇 무슬림 작가들이 제국의 남북분단 같은 중국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정보가 확대되고 순환됨에 따라, 지리학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그들의 지리학 논문에 포함시키고 지도를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리는 것에 의해 세계와 중국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이미지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축적된 지리학 지식은 알 이드리스이Al-Idrisi와 야쿠트Yaqūt의 위대한 두 저작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이 지도는 다가올 수 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3장 ‘몽골세계에 대한 해석-중국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이해(1260-1368)’에서는 몽골시기 중국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 있다. 13·14세기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중국의 이해에 양적 질적 모두 극적인 성장을 가져온 시기였다.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이 기간 동안 융성했던 역동적인 문화교류와 해당 시기의 진정한 국제적인 분위기와 연계된 것이다. 몽골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이슬람 세계의 동쪽 부분에 정치적으로 통합시킨 대륙횡단 제국을 만들어 이런 지식의 폭발에 불을 붙였다. 몽골이 1260년에 중국과 이란에 만든 국가들-원과 일한국-은 밀접한 정치 관계를 유지했고, 비록 기간이 짧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전례 없는 물품, 사람, 그리고 정보의 양적 다양성을 허용하였다. 남송을 멸망시킨 뒤에 사실상의 중국 황제와 몽골 제국의 법적인 지배자가 된 쿠빌라이는 그의 제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스리고자

해서, 세계에 대한 지리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쿠빌라이 통치 기간인 1280년대에 시작된 무슬림 학자 자말 알딘 Jamal al-Din은 무슬림 지도를 이용하여 먼 지역을 묘사하는 세계지리 저서를 출판했다. 그 시기로부터 전해지는 지도는 거의 없지만, 1402년 조선에서 그려진 混一歷代國都疆理地圖 같은 후대의 지도는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의 상당히 정확한 윤곽에 대한 중국 지리학자들의 이해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지도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에 인도를 끼워 넣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작은 섬으로 묘사하고, 아울러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해안선을 생략하였다. 현존하는 몽골 시기의 지도는 泉州에서 페르시아만까지의 항로를 시각적인 형태로 묘사한다. 이러한 지도들은 중국에서 유통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은 서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리정보를 얻는 것에 의해 이슬람 세계에 대한 지식을 늘려갔다.

비록 몽골의 육상교통로 개통이 무슬림 들을 중국으로 이끌었지만, 泉州에서의 해상무역은 몽골 시대 동안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국제무역과 여러 문화가 섞인 연계의 가장 중요한 장을 창조하였다. 원

정부는 이미 그들 이전에 수 세기동안 융성했던 해상무역로에 전면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즐겼고, 이는 일한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중국이 이전 당과 송 시기에 발전시켰던 해상무역을 이어받아, 몽골은 전혀 새로운 수준의 국제해상무역을 하였다.

在中國 무슬림 커뮤니티의 변영과 무역에서의 역할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중국의 지식에 기여하였다. 泉州에 있는 많은 무슬림 명문 가운데 1350년 吳鑿의 석비가 있다. 汪大淵의 여행기 서문을 썼고 泉州에 있던 무슬림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학자 吳鑿은, 泉州市 무슬림 사원의 보수에 헌신했다. 그것은 간단명료하게 무슬림의 지리와 역사를 서술했을 뿐 아니라 몇몇 중국인들이 무슬림과 무슬림 커뮤니티에 가지고 있던 열린 마음도 보여준다고 한다.

4장 ‘마르코 폴로를 넘어- 중국에 대한 이슬람의 지식(1260-1368)’에서는 몽골시기 이슬람 세계의 중국 인식을 다루고 있다. 몽골 시기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중국의 이해가 그러하듯이 중국에 대한 이슬람의 이해에 돌파구가 되었다. 거대한 몽골 제국의 일부로서 일한국 정부는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직접 교역을 즐겼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 대한 이슬람 지식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처음으로 무슬림들은 중국에 대한 정보를 상대 속도로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 원과 일한국 사이의 볼라드 Bolad 같은 사절단은 최신의 정보를 얻는 것을 도왔다. 이러한 교류는 일한국의 몽골 지배자에 의해 후원받은 라쉬드 알 딘 Rashīd al-Dīn의 『종합사 *Compendium of Chronicles*』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종합사』는 독특하게 역사와 지리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킨 책인데, 그 범위는 초기 무슬림 작품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 세계에서 중국은 더 이상 미지의 나라가 아니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를 여행한 무슬림 상인들과 여행자들은 중국에 관해 이슬람 작가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 중국에 만연했던 정치체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의 무슬림 상인들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바닷길을 따라 상업 커뮤니티를 창조한 인도양에 걸쳐있는 국제 무역 네트워크를 전개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몽골 통치 아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많은 부분의 점진적인 이슬람화와 중국에서의 무슬림 커뮤니티의 발전적인 번영은, 많은 숫자의 무슬림들이 중국을 여행하는 것을 격려했다. 이븐 바투타 Ibn

Batutah는 무슬림들이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항구 나아가 원의 수도 베이징을 바다에서 강으로 그리고 대운하를 거치는 물길을 경유했을 직접 여행이 가능했음을 묘사했다. 무슬림 여행자들은 그들의 여행기간 동안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체류할 수 있었다. 이븐 바투타의 책에서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간의 해안을 따라 왕복하는 사람들과 중국에 정착한 무슬림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5장 ‘1492년 이전 반대편 세계의 유산-중국의 이슬람 세계 이해와 이슬람의 중국에 대한 지식(1368-1500)’에서는 포스트 몽골-유럽인 등장 이전까지 두 세계의 상호인식을 다루고 있다. 학자들은 종종 중국과 이슬람 세계간의 교류는 몽골의 멸망과 함께 막을 내렸다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이슬람 자료들의 면밀한 검토로 1500년대 유럽의 확장 직전 시기에 두 사회간의 교류와 지리 지식이 점점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몽골 멸망 이후 생긴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무슬림들은 명나라의 鄭和, 티무르 왕조의 Ghiyāth al-dīn Naqqāsh 같은 정치적인 사절을 교환하는 것에 의해 다른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그들은 또한 몽골 시기부터 전해진 지리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1405년 鄭和의 항해는 바스코 다 가마의 1498년 희망봉 모험보다 대략 한 세기가 빨리 시작했다. 명나라 항해의 주요 목적은 중국과 이슬람 세계 사이의 아시아 해안가 나라들에게 중국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몽골이후 시기의 이슬람 세계 또한 이븐 마지드Ibn Majid 같은 저명한 항해가의 저작에 무슬림 항해 지식의 집적이 보인다. 이븐 마지드 작품의 중요성은 수세기동안 축적된 인도양 세계에 대한 지식의 총합이나 무슬림 항해 지식의 종합을 대표한다는 데 있다. 많은 정보는 무슬림 항해가들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포르투갈인들에게 아시아로의 길안내 역할을 위해 고용되었다고 한다.

### Ⅲ. 본서의 시각과 연구쟁점

본서의 시각은 서론과 결론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시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럽 중심 세계사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시각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갈등이 상업과 문화교류를 이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이슬람 사회에서 지식의 증가를 기록하고 촉진시키는 지리학자와 지도제작자는 종종 정부의 후원과 함께 한다. 이런 지식의 토대를 제공하는 정보는 두 사회 사이를 이동하고 이 문화 교류 과정에 참여한 중개인으로부터 온 것이다.

두 세계간의 가장 극적인 접촉의 형태는 아바스와 당, 즉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제국이 751년 탈라스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한 복잡한 정치 갈등에 빠져들었을 때 시작됐다.<sup>3)</sup> 정치적인 문제는 계속되었고, 중앙아시아에서 육상무역의 점진적인 쇠퇴를 야기하였다. 이는 상업적인 관심을 바다로 돌리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좀 더 평화적인 형태의 해상 상업 접촉이 번성하였다. 이러한 해상 확장을 이끈 주요한 추진 세력은 이슬람의 정치적인 확장과 상업을 권장하는 새로운 무슬림

---

3) 아랍·무슬림군대에 의한 대정복운동과 이슬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 참조. 家島彦一, 『イスラム世界の成立と國際商業 -國際商業ネットワークの變動を中心に』(東京: 岩波書店, 1991).

윤리에 편승한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 세계 출신의 선원들이었다. 그들은 중국과 이슬람 세계간의 새로운 해상 가교를 만드는 중요한 중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세계 출신 상인들은 원거리 교통에서 가장 능동적이었지만, 물론 바다는 때때로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순회하는 상인들과 선원들의 늘어난 인구는 무역로를 따라 정착했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지리학적 지식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위에 시각화하는 것이었다. 지리학에서의 자료와 개념의 소통은 쓰는 것 보다 그리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는 것은 효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도제작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국과 이슬람 사회의 지리학자들 모두는 효과적인 지도 생산에 성공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해 받은 지리와 지도제작의 선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로는 ‘몽골 통치 아래 통합된 사회에서 정보의 직접적인 전달’이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가장 활발했던 교류는 몽골 지배아래 두 사회의 중요 부분이 함락된 1260-1368년 사이에 일어났다. 몽골이 다스리는 원과 일한국간의 원

거리 접촉이 초래한 가장 주목할 만한 성취 가운데 하나는 두 사회에서 세계 지리 지식의 증가이다. 그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어느 정도 조정하게 만들었다. 정부의 후원은 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대와 그것을 통한 사람과 정보의 잦은 이동을 장려했다. 그러한 태도는 중국과 이슬람 사회 모두에 영향을 끼쳤고, 아마도 같은 시대의 유럽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시기에 많은 무슬림들이 중국으로 이주했고 이는 중국을 변화시켰다. 중국에서의 무슬림 이민자들은 廣州 같은 항구도시에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개별적으로 살았는데 왜냐하면 중국 조정에서 받은 자치권 때문이었다. 몽골의 서부원정이 끝난 뒤에 많은 무슬림 군인들이 중국으로 갔고 동투르크스탄 같은 곳에 정착했다. 장인들과 상인들이 뒤를 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廣州와 泉州 같은 동남부 항구에 정착했고, 남·동남아시아와 중국간의 상업을 위한 큰 무역 상점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왔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세계 지리 지식의 증가 속도’이다. 몽골 지배아래 전례 없는 이문화간 접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몽골 지배자들이 중국과

일한국 모두에서 권력을 잃은 뒤로 두 사회는 점차 멀어졌다. 계승국간의 긴장은 티무르의 신흥 明제국 공격 시도로 정점에 달했는데, 그 계획은 티무르가 1405년에 죽으면서 끝났다. 그 동안에 신흥 명나라는 해안에서의 사무역 금지와 지역의 해상무역 붐과 그에 수반하는 아이디어를 저해하는 강력한 정책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 남긴 몽골 유산의 인쇄물은 살아남았고, 중국인들의 마음에 계속 영향을 끼쳤다. 元시기의 정보를 포함한 세계지도 가운데 남아 있는 사본들은 실질적으로는 명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지리에 대한 인식은 몇 십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유명한 鄭和의 항해에 의해 알 수 있다.

전근대 교류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정화 항해의 성취와 스케일을 과장하면서 명시기의 예외적인 성과로써 함대의 주목할 만한 탐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실제 접촉은 이전 시기인 몽골 시기보다 더 제한적이었음이 증명되었고, 명 시기에 중국에서 유통된 지리지식의 대부분은 이전 왕조기간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사실상 명 시기는 이슬람 세계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세계와의 접촉이 쇠퇴한 시점이었다. 동시에 1500년 이후에 유럽인들이 인도

양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국과 이슬람 세계간의 직접 교류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이 점차적으로 아프로-유러시안 세계를 아메리카에 연결하는 국제해양무역 시스템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는 ‘유럽인의 흥기에 대한 아시아 지리 지식의 영향’이다. 유럽인들은 1492년과 1498년에 세계사에 이정표를 세웠다. 어쨌든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이러한 성취의 토대를 준비했다. 중국과 이슬람 세계 간에 축적된 지리 지식은 점차적으로 유럽으로 흘러들어갔다. 처음으로 이러한 지식을 손에 넣은 것은 몽골 시기의 이탈리아 상인들이었다. 프란체스코 발두치 페골로티 Francesco Balducci Pegolotti (1310-1347)는 그가 아시아 자료에서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중국행 권유를 담은 상업 안내서를 저술했다. 당시에 유럽에서 베스트 셀러였던 마르코 폴로의 책은 그가 실제로 중국에 갔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러한 역사적 현상을 반영한다. 몽골 시기 이러한 작품들의 등장은 세계 경제 시스템이 13세기에 유럽 시스템의 선구로서 존재했고 기능했다는 제넷 아부-루고드 Janet Abu-Lughod의 제안<sup>4)</sup>을 떠올리게 한다. 폴로 주장의 진실성에 대한 끝없는 논의과

정에서 우리가 놓쳐왔던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의 책이 전근대 세계 시스템의 축적을 동반한 거대한 정보 유통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포르투갈인과 콜럼부스 같은 유럽 팽창의 증개인들의 활동은 아시아에서 기원한 지리 지식의 조직적인 축적에 의해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세계사의 다원화 모델'이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를 반영하는 근대 초기이래의 유럽의 세계 지도와 반대로, 전근대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지도는 오랫동안 두 사회간 상업과 학문 교류의 증가를 초래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근대 시기에 다른 사회간의 물자와 정보의 밀접한 연계와 교류는 종종 몽골 제국 같은 군사 정복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면에 다중심과 국제 사회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사회는 정치·군사 갈등보다는 실용적인 상업 접촉을 통해 서로 교류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유럽중심 모델을 극복하고 어떻게 다중심 모델이 세계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

는데 도움이 된다. 대체로 전개과정의 동등한 수준을 경험한 중국과 이슬람 세계간의 전근대 관계는 식민화 과정에서 종종 발견되는 불평등한 접촉과는 전혀 다른 이문화간 교류를 분석하는 대안 모델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상으로 저자의 주장이나 시각을 살펴보았다. 저자의 의견에 대해 특별한 이의는 없으나 약간의 의문점이나 아쉬움 등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전체 틀에 대한 것이다. 지도를 통해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교류를 살펴다 보니 교류의 시작점 즉 중국과 이슬람 세계만이 강조되고, 그와 연계된 여러 사회나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누락되었다고 생각된다. 아시아 지역만 놓고 봐도 중국 외에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지역과 인도로 대표되는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본서에서 소외받거나 누락이 된 부분이 많다고 보인다.

아울러 동서교류는 예로부터 실크로드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왔다. 실크로드는 크게 육상과 해상 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저자는 해상 구간만을 주로 다루었다. 약간의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4) Abu-Lughod, Janet L.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박홍식·이은정 옮김, 『유럽 패권 이전 -13세기 세계체제』(서울: 까치, 2006).

마지막으로 교류는 크게 거래되는 내용에 따라 사람, 물자, 지식 및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자는 중국과 이슬람 세계의 교류를 사람간의 교류에 초점을 두어 상대적으로 물자 즉 무역품과 교류를 통해 주고받은 지식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많다.

#### IV. 맺음말

이 책은 800년간 일어났던 전근대 중국과 이슬람 세계사이 교류의 역사를 다룬 것이다. 저자의 말대로 두 사회의 교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막대한 부, 아이디어, 그리고 큰 세력이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두 사회의 교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중요한 사건임이 틀림없다.

향후 본서의 주제와 관련해서 우선 두 사회 내부의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각 사회의 네트워크의 내부 즉 중국과 이슬람 사회의 내부구조에 대한 검토와 이의 비교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운송수단의 변화나 발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시기별, 지역별 운송수단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무역품이나 정보 같은 교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주제어: 중국, 이슬람, 지도  
關鍵字: 中國, 伊斯蘭, 地圖  
Keywords: Chinese, Islam, map

(원고접수: 2015년 3월 19일,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통보: 4월 15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4월 24일, 게재확정: 4월 25일)